

美 “내년초까지 북핵 협상 완료”

2008 회계연도 보고서...올해 ‘한·미 FTA’ 마무리

미 국무부는 2008년 초까지 북핵 협상을 마무리하고 북한 핵무기와 핵프로그램의 해체 시작 및 검증체계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5일 공개한 2008 회계연도 업무 계획 보고서에서 또 2008년엔 북한의 모든 중·장거리 미사일 의 해체를 위한 대북 미사일 협상의 개시도 목표로 제시했다.

국무부는 이와 함께 올해 한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뒤 2008년엔 FTA 상의 강화된 노동권 보호조항에 따라 ‘한

국’이 파업권 향상 의무를 이행토록 하는 것’을 국제노동기구 준수 목표의 하나로 들었다.

이 업무계획은 “올해 내내 대북 핵협상이 지속되는 것”을 가정해 2008년 초 협상 타결을 목표로 제시하는 한편 화학무기 수출 통제제인 호주그룹(AG)을 통해 “지속적으로 북한의 화학무기 거래를 감시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생물무기 문제에 대해서도 북한의 생물무기 협약 준수를 계속 압박해나간다는

이를 위한 전략을 보강할 것이라고 국무부는 밝혔다.

국무부는 특히 북한의 미사일 문제와 관련,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의 1등급 대상인 탄두 중량 500kg 이상, 사정 300km 이상의 미사일과 관련 프로그램을 모두 제거하는 것을 포함해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검증가능한 제한과 수출 금지” 협상도 2008년에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탈북자들의 미국 수용 정책을 계속 추진해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탈북자들의 인도주의적 필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미 정부간 강력하고 지속적인 관계가 긴요함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AP통신=연합뉴스



축구공란제리 모델 축구팬 유혹중!

독일 모델들이 지난 4일 도르트문트의 시그날 이두나 파크 스타디움에서 열린 분데스리가 축구 도르트문트-슈투트가르트간 경기가 진행되는 옆에서 축구스타일의 란제리를 선보이고 있다. /AFP=연합뉴스

“공관 능력대응, 국군포로 유해 北送”

40대 탈북여성 주장

유족에 의해 중국으로 반출된 국군포로의 유해가 해외 공관의 ‘능력대응’으로 강제 복송되는 일이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탈북여성인 이 모(45)씨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한나라당 전여국 의원이 주최하는 ‘재중 탈북자 문제, 실태 발표 및 정책 토론회’에서 발표할 ‘국군포로 유해 복송사건 경위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 중국 선양(瀋陽)에서 발생한 국군포로 가족 9명의 강제복송 파문인 ‘채 가시지’ 사건을 가운뎃 나눈 것으로, 사실상 드러날 경우 정부의 국군포로에 대한 무책

임한 대응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씨는 경위서에서 2004년 9월24일 국군포로인 아버지의 유해와 함께 딸들을 데리 오기 위해 국방부에 관련 서류를 제출했으며, 국방부로부터 “중국에 있는 영사관으로 전화연락을 하면 모든 도움을 보장해준다”는 말을 듣고 같은해 10월1일 중국으로 떠났으나 현지 사정은 판판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 옌지(延吉)에 도착한 뒤 영사관에 전화를 걸어 관련서류 접수여부를 확인한 결과, A영사는 “아직 아이들의 서류는 접수받지 못했다”고 했으나 “아버님 유해가 오면 위치를 알려달라”고 해 북한으로부터 선친의 유해 송환에 착수했다.

하지만 같은달 7일 선친 유해를 모시고 중

국 풍징(龍井)으로 들어오다가 단속에 걸려 공관에 유해와 여권을 회수당한 뒤 통정공관 국외와자로 자신도 넘겨졌으나 가까스로 A영사에 연락해 신분 확인을 받고 풀려났다.

그는 이 과정에서 아버지의 유해는 중국 공관에 남겨둔 채 일부만 들고나와 인근 과수원에 기거하면서 영사관측이 남은 일을 해결해줄 것을 고대했으나, A영사로부터 1주일 뒤 돌아온 전갈은 ‘유해 중 일부만을 한국으로 가져가 유전자 검사를 거쳐야 선친 유해와 아이들의 한국행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씨는 “외교부가 아버님의 서류를 A영사에게 보냈지만 이미 그때는 아버님의 유해가 북한 보위부에 의해 복송된 뒤였다”고 허탈한 심경을 드러냈다.

연합뉴스

美, 北 민주화 지원 200만달러 첫 책정

2008 회계연도 예산안 공개

미 국무부는 2008 회계연도 예산안에 북한과 이란의 민주화를 지원하기 위한 ‘경제 지원기금(ESF)’을 정규 예산안에선 처음으로 각각 각각 200만 달러와 7천500만 달러 책정했다.

5일 공개된 2008회계연도 예산안에 따르면 조지 부시 대통령이 올해 총 33억2천만 달러를 의회에 요청한 ESF는, 개발원조(DA) 대상국에 속하지는 않지만 ‘특별한 경제적, 정치적 혹은 안보상의 여건을 감안해’ 재건증거나 개발도상국들의 정치·경제

안정을 돕기 위한 자금이다.

그러나 북한과 이란의 경우는 이들 나라 정부에 주는 게 아니라 이들 나라의 민주화 운동 단체나 기구에 지원하는 것이어서 대북은 물론 다른 나라에 대한 ESF 지원과 성격이 달랐다.

국무부는 2004년 입법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2008 회계연도까지 매년 2천400만 달러까지 북한의 민주화 지원을 위한 자금을 책정,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으나 2007 회계연도 예산안까지는 이 자금을 별도로 책정하지 않았다.

국무부는 다만 미국의 인권단체 프리덤 하우스가 2005~2006년 미국, 한국, 유럽에

서 3차례 연 국제북한인권대회 개최비로 200만 달러를 지원했다.

국무부의 새 예산안은 또 미국의 소리(VOA)와 자유아시아라디오(RFA)의 대북 방송을 하루 10시간으로 늘리고 특히 RFA의 경우 단파외에 중파 방송을 추가하는 것을 포함해 대외방송 지원비로 6억6천800여 만달러를 배정했다.

국무부는 “2008 회계연도 대외방송 지원비는 북한, 중동, 소말리아, 쿠바를 중점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이와함께 “북한 밖의 취약한 북한인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 및 보호”를 포함해 동아시아 지역에서 유엔난민고등판무관(UHCR)과 국제적십자위원회(ICRC)의 이인·난민 지원비로 지난해와 거의 같은 액수인 2천만달러를 배정했다.

연합뉴스

힐 “北, 중유 지원 원하면 핵거래 손때야”

“비핵화 의지 행동으로 보여야”

크리스토퍼 힐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5일 “북한은 이번 6자회담에서 협상할 태세가 돼 있다고 믿는다”면서 “그러나 북한이 에너지나 경제적 지원을 원한다면 핵거래(nuclear business)에서 완전히 손을 떼야 한다”고 강조했다.

힐 차관보는 이날 일본에 도착,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중유 50만톤과 여타 지원을 제공받는 대가로 영변 원자로를 동결할 준비가 돼 있다는 아시아 신문 등 일부 보도와 관련,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힐은 블룸버그와 CNN 등 미국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힐은 또 “문제는 북한이 지난 2005년에 체결한 9·19 공동성명을 완전히 이행할 것이냐 라는 점”이라며 “물론 당시 공동성명에

북한에 대한 경제적, 에너지 지원방안이 포함돼 있지만 최종 목표는 북한이 그 지긋지긋한 핵원자로 가동을 중단하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힐은 특히 “이번 6자회담이 1년여의 교착 상태에서 벗어나 열리는 만큼 북한은 협상할 준비가 돼 있을 것”이라고 말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손 매코맥 미 국무부 대변인은 기자간담회에서 “이번에 재개되는 베이징 6자회담을 통해 그간 꾸준히 진행해온 정치 작업들을 합의와 행동으로 옮겨야 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한반도 비핵화에 실질적으로 착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로이터 통신은 외교관들의 말을 인용, “미국과 북한 모두 이번 회담에서 만큼은 모종의 합의를 성사시키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는 그러나 “북한이 설사 영변 원자로를 폐쇄한다 해도 최소한 6~8개 핵무기를 제조하기에 충분한 핵분열 물질은 따로 비축할 것이라는게 일부 전문가들의 분석”이라고 소개했다.

연합뉴스

마카오, 대북제재 동참

군사장비·사치품 수출 한적 금지

북한의 물자조달 창구이자 불법자금 통로 역할을 해오던 마카오가 유엔의 대북제재 조치에 참여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마카오 정부는 지난달 10일 ‘행정장관 지시’로 북한의 핵실험 이후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에 따라 마카오를 통한 사치품과 군사장비의 대북 수출과 한적을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 시행중이다.

이번 조치는 북한의 각종 무기장비 및 군수물자 조달 외에도 권력층을 위한 호화 사치품 조달에 결정적인 타격이 될 전망이다.

금수품목에는 전투기, 공격용 헬기, 군함, 탱크, 장갑차, 대포 등 군사물자와 원자재, 부품 뿐 아니라 핵, 미사일 관련 물질과 설비, 기술도 포함되며 이런 장비를 유

지, 보수, 제조하는 기술과 자문, 서비스도 마찬가지다.

마카오항을 경유하는 것 뿐 아니라 마카오 등록 선박이나 항공기를 통해 북한에 수출, 재수출, 한적, 반출하는 것도 전면 금지된다. 북한산 군사장비가 마카오를 거쳐 교역되는 것 또한 금지된다.

마카오 정부는 외교 및 국방 사안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는 중국 중앙정부의 지시에 따라 이런 규정을 마련했다.

그러나 ‘사치품’의 항목은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았다.

마카오는 북한의 조공무역과 자회사들이 각종 물자와 사치품, 무기 원료를 조달하고 불법 자금을 거래해오던 곳으로 최근 북한 기업인들이 대거 마카오에서 철수한 것도 이번 조치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마카오=연합뉴스

중국정부 공식 홈페이지 동해-日本海 단독 표기

중국 정부가 동해를 ‘일본해(日本海)’로 단독 표기한 것으로 확인돼 파문이 일고 있다.

6일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 중화인민정부’ 홈페이지(www.gov.cn)에서 동해를 ‘일본해’로 단독 표기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특히 이 표기는 영문 홈페이지에서만 볼 수 있어 그 의도에 궁금증이 일고 있다.

사이트에서 영문 홈페이지를 방문해 ‘중국 팩트파일(China Factfile)’과 ‘중국 소개(China in Brief)’, ‘중국 지도(Map of China)’, ‘지형(Topography)’을 이어서 클릭하면 단독 표기를 발견할 수 있다.

/연합뉴스

국비훈련생 모집

(재직근로자 직업능력개발 과정)

정보화기초과정(2월12일 개강)

- 정보화기초1과정→윈도우XP, 인터넷 활용, 한글문서편집 활용
- 정보화기초2과정→엑셀, 파워포인트, 컴퓨터 활용
- 수업시간 월~금 19:00~21:00

주택관리사·공인중개사

- 공인중개사(월~토) → 교육기간: 3/5~4/30
- 주택관리사 주말반(토,일) → 교육기간: 3/2~6/2
- 주택관리사(월~금) → 교육기간: 4/2~6/29

기타 사항

- 모집대상: 고용보험에 가입중인 사업장에 근무중인 재직근로자
- 기타사항: 수료후 100%~80%환급
- 접수: 수강신청처: 훈련담당훈련사(주요직업) 직선전화에 제출수강

버스노선

- 전남대학교: 동선37, 지원52, 지원54, 금남58, 두암81, 518
- 문화전당역(구 도청): 진월07, 청담09, 지원45, 지원51, 지원52, 지원53, 금남55, 금남56, 금남57, 금남58, 금남59, 풍림61, 문흥80, 두암82, 518, 1187
- 예술의 거리 입구: 동암07, 금남56, 대촌70, 대촌170

노동부 지정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현대직업전문학교

☎ 224-4560, 224-4580

★ 위치: 전남고교건너 김재규경찰서내 ★ http://www.hdeu.co.kr

국가직/ 지방직 시험대비

www.mdgosi.co.kr

무료문제풀이 개강 2월15일

= 아간반 진행 =

- 100% 출석시, 수강료100% 환불
- 문제풀이 수강료: 100,000원

김중규 행정학 문제풀이 특강

300명 선착순 접수, 수강료 60,000원 (개강: 2007년 4월 5일(목), 4월 12일(목) 16:00~22:20), 교수 김중규

무등고시학원 동부경찰서 222-4560

www.kjkimyoung.co.kr

2007년에 이어 2008년에도 성공신화는 계속된다

2008년 편입시험 대비반 개강기초과정

= 개강: 3월5일 =

김윤신 초등교육과정 개강 3월5일(월)

의·치의학, 한의학 전문대학원 대비반 개강

개설과목: 영어/영어추론/생물/화학/유기화학/한문/한의학

김영대학면입학원 광주중앙경찰서 227-8088

상무대학 직업전문학교

606-7000 www.sangmoo.or.kr

전액 국비지원 교육생모집

(매월 31만원 지급)

정부위탁훈련(1년)	실업자훈련(6개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기용접 (산업설비지능화) 전기공사 출력작업 (년유년) 실내건축 (09:20-15:20) 건축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컴퓨터유지관리 (3.20개강) CO2 용접 (3.20개강) 자동차정비 (3.20개강) 컴퓨터산업디자인 (09:20-15:20) 캐릭터상품개발 (15:20)

★ 저소득층: 직업훈련생(중·고졸) 지원대상, 사선3명, 선분출, 우체국통정서본

상무장학잡운전전문학원 606-7114

대형 / 트레일러(추레라) / 책카 / 1종 · 2종 보통 / 시내연수

지게차 / 굴삭기(포크레인) 개인지도 전문

- 최단 4일 교육후 면허취득
- 100%에 가까운 높은 합격률
- 취소자도 바로 대형면허 취득가능
- 학생우대(각직업학교 및 제휴학원생포함)

대형면허 공무원시험 가산점적용

교·육! 등록후 확인에 보세외 후회없는 선택이라 생각할 것입니다. "가장빠른 면허취득 기회제공" 상담환영

직원 채용

문과(국어,영어,수학), 이과(물리,화학,생물,지구과학), 외국어(영어,일본어,중국어), 기타(특수교육) 등 10명 이상을 채용합니다.

- 무사업장: 관리·인원, 인사·총무, 경비·청소·보안
- 지역직: 해당지역관리·인사·총무, 인사·총무, 경비·청소·보안
- 사립: 인사·총무, 인사·총무, 경비·청소·보안

4대보험·역사·재택근무·연봉·휴무·복합

▶ 접수처: 직원 채용처: 학교 본부 (062-606-7114) 7000

▶ 문의처: 채용처: 학교 본부 (062-606-7114) 7000

▶ 채용처: 채용처: 학교 본부 (062-606-7114) 7000

▶ 채용처: 채용처: 학교 본부 (062-606-7114) 7000